

대기업 종사자 1명당 8700만원 남겨

통계청, '2017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 발표

중소 종사자 1명당 1100만원 이익...인원, 대기업의 3배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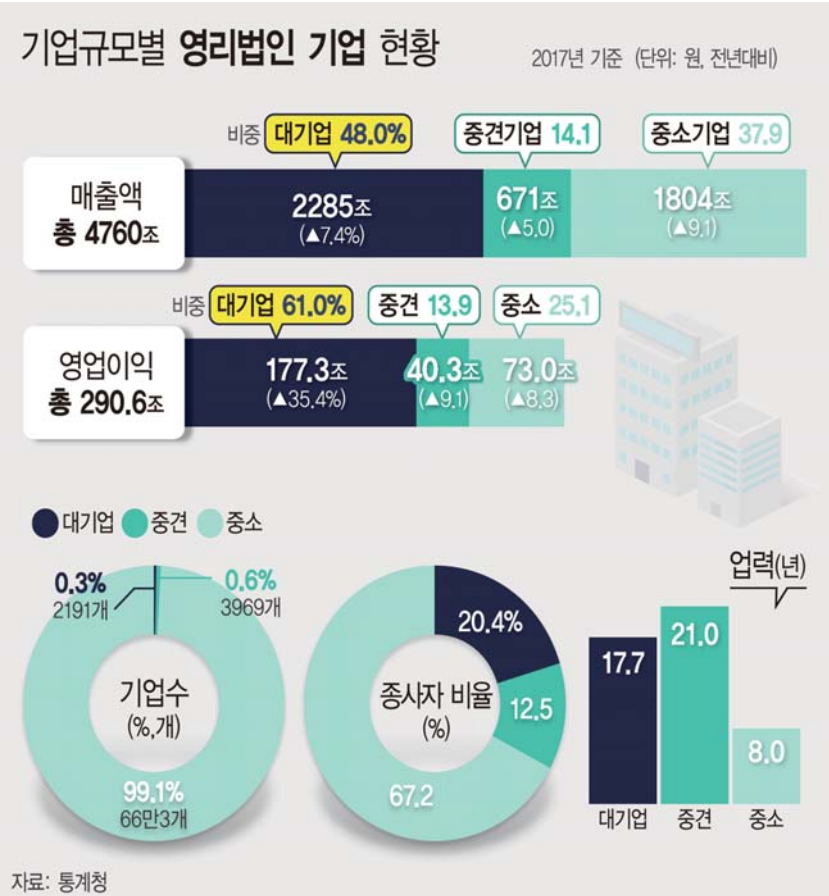
근로자 1명당 남기는 이익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8배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지만, 영업이익은 대기업의 73분의 1에 불과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기업 종사자 1명당 영업이익은 8700만원, 중소기업은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종사자가 영리 활동을 통해 남기는 이익이 중소기업 종사자의 8배에 가깝다는 얘기다.

종사자 수를 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3배가 넘었다. 지난해 중소기업 종사자는 675만3000명, 대기업 종사자는 204만7000명이었다. 구성 비로는 중소기업이 67.2%, 대기업이 20.4%를 각각 차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전체의 25.1%를 차지해 전체의 1/4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중소기업 영업이익은 72조5960억원으로 1년 전(67조3680억원)보다 8.3% 늘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은 177조3420억원을 남겼다. 1년 전 대비 증가 폭도 35.4%에 달했다.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전체 이익의 61.0%를 차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고용 창출력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기업 수가 3.0% 늘어나는 동안 중소기업 수는 6.2% 늘었



다. 중소기업 수는 총 66만3개로 조사돼 전체 기업 수의 99.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은 2191개(구성비 0.3%), 중견기업은 3969개(구성비 0.6%)로 나타났다. 기업당 영업이익도 대기업이 809여원을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은 1억여원에 불과했다. 차이는 732배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대기업에 편중돼 있는

측면이 있다"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1기업 1사업체'인 반면 대기업은 공장들이 묶여 하나의 법인으로 집계되는 '1기업 다사업체'인 경우가 많은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매출액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는 영업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대기업은 지난해 1년 전(2127조4730억원)보다 7.4% 증가한 2285조141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체의 48.0%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매출은 1803조91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1% 늘었다. 전체 대비 해신 37.9%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의 업력은 대기업의 반도 못 미쳤다. 지난해 중소기업 업력은 8.0년, 대기업의 업력은 17.7년이었다. 중견기업의 업력은 21.0년으로 가장 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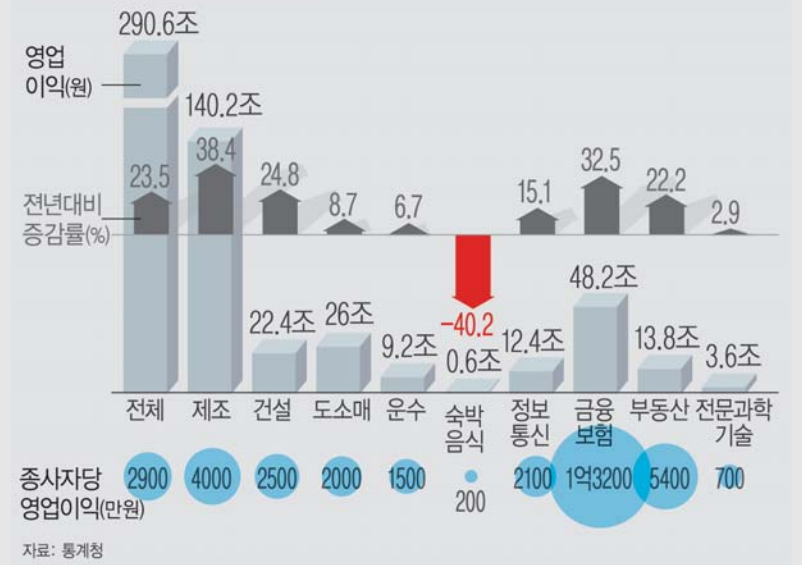
부채 총액(6785조6920억원) 중 중소기업 부채는 1299조3530억원으로 19.1%를 차지했다. 대기업 부채는 5110조8150억원으로 전체의 75.3%에 달한다. 중견기업은 375조5240억원으로 가장 낮은 비중(5.5%)을 차지했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에서 남성 종사자 수가 여성 종사자의 2배를 넘었다. 대기업 남성 종사자는 141만1000명, 여성 종사자는 63만6000명으로 각각 68.9%, 31.1%의 비중을 차지했다. 중소기업에선 남성이 45만2000명, 여성이 219만1000명으로 각각 67.0%, 32.4%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성비(여성/남성)는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 0.515로 가장 높았으며 대기업 중에서도 자산 총액의 합계가 10조원을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0.432로 가장 낮았다.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는 법인세 납부 대상 법인 중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의 구조 및 재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중으로 작성된다. 의료 법인, 학교 법인 등 비영리 법인은 제외되며 종사자는 영리법인에 종사하는 일평균 인원으로 산정된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으로 기업 규모를 대기업(상출기업 및 기타), 중견기업, 중소기업(중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뉴스스

주요 산업별 영업이익 2017년 기준



작년 '사드 여파' 숙박·음식점업 영업이익 -40% 급감...역대 최대폭

전체 영업이익 23.5% 높아졌지만...숙박·음식점업 '홀로' 감소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여파로 숙박·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영리법인의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숙박·음식점업에 종사하는 법인들의 영업이익은 6410억원으로 1년 전(11조710억원)보다 40.2% 급감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숙박·음식점업 영업이익은 지난해 2015년 1년 전보다 21.2% 떨어진 후 2016년 4.9% 오르며 회복했지만 지난해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1년 전(235조2440억원)보다 23.5% 늘어난 290조631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나온 결과다. 숙박·음식점업은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중국과의 마찰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에 속한 일부 대기업들이 실적에 영향을 받은 점이 크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을 기업 1개당, 종사자 1명당 나누는 값도 대폭 줄었다. 숙박·음식점업의 기업당 영업이익은 1년 전(1억1000만원)보다 45.4% 감소한 6000만원, 종사자당 영업이익은 42.0% 감소한 2000원에 불과했다. 전체 기업으로 보면 기업당 영업이익은 4억원, 종사자당 영업이익은 2900만원 수준이다.

뉴스스

"집값 올라도, 지갑 안 열려...무주택·고령층 소비 위축"

집값 상승-소비 진작 '자산효과' 마이너스일 가능성

집값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는 이른바 '자산효과'가 실제로는 미미하거나 마이너스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은행의 2018년 11월호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주택자산 보유의 세대별 격차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논고(이승윤 한은 조사국 과장, 최영우 조사역 작성)에 따르면 청년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무주택 가구의 자산효과가 감소하는 등 주

택가격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고서가 2013~2016년 중 주택자산을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집값 상승이 세대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통상 집값 상승은 부(富)의 효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연구 결과 집값이 오르면 주택보유가구의 소비를 일정

부분 늘리는 효과는 있었다. 집값 상승률이 1%p 올라갈 때 이들 가구의 소비 증가율도 약 0.02%p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세대별로 차이가 났다. 청년층 소비 증가율은 0.02%p 감소했고, 고령층 소비도 0.021%p 증가에 그쳐 중·장년층(0.034%p)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청년층은 빚 상환 부담이나 미래 주택확대 계획으로 저축을 늘려 소비를 하지 않고, 고령층은 노후 대비 등으로 소비를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주택자산 보유구조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자산효과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관련 부채를 보유한 비중은 중·장년층의 경우 2013년 53.5%에서 2017년 51.7%로 줄었으나 고령층은 같은 기간 31.0%에서 36.4%로 늘어난 상황이다.

집값 상승이 무주택 가구의 소비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 집값 상승률이 1%p 확대될 때 무주택가구의 소비 증가율은 0.246%p 하락했다. 그중에서도 고령층의 소비 증가율은 가장 큰 폭인 0.406%p 떨어졌고, 뒤를 이어 청년층도 0.448%p 내려갔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중·장년층의 소비마저도 0.037%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